海外情報

종란수출 계속 증가

잡종강세 산란계인 Tetra.L은 아주 높은 산란능력과 폐사율이 적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화란당국에 의하면 이 계종의 58,000수의 산란계의 능력검정 결과 51주 검정기간 동안 수당 평균 285개의 산란을 했다고 한다. 이 품종은 Bablona 농장의 육용계를 다량개량한 것이며 Tetra B는 이것을 개량한 것이라 한다. 적어도 이들 계종의 105,000개의 수정란을 1974년부터 알제리에 수출했는데 이의 성공으로 최근에는 1천 3백만개의 알을 거래하게 되었다. 레바논과 이락 또한 수정란에 대한 공급에 대해 항가리와 계약을 체결했다.

페루의 어획량 추정〈페루〉

페루는 어획기가 다시 찾아온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동안에 2백 30만톤의 어획고를 올렸다. 페루 서해안의 어획탐색은 6월말까지 계속되었다. 최종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 기간동안의 어획율이 발표된다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의 어획량과 비교되는 수준인 60만톤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전반기의 총 어획량은 3백 50만톤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3백만톤의 어획량을 올렸으나 여기에서 생산된 어유는 약 16만 9천톤이었으며 고급 단백분은 60만 6천 7백톤을 생산했다.

우모공장세워 양질의 단백질 생산〈스웨덴〉

스웨덴의 사료회사들은 1백만 달러를 들여 우모분(羽毛粉)으로부터 단백질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건설 계획에 의하면 스웨덴에서 매년 생산되는 우모의 1만톤중 적어도 80% 가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산물은 탈수(脫水)후 3,000톤의 고급단백질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 새로운 공장의 건설로 우모폐기물의 공해(公害), 해충(害虫)등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를 생산하여 가금사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큐바의 경제제약 완하하면 가금생산 늘듯(미국)

지난 6월말이래 채란업자들은 제약된 계란(난각이 없거나, 틈이 생겼거나, 깨진것)을 자신의 소매상이나 생산지로부터 떨어진 마을에 팔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이러한 계란은 생산지에서나 이웃간의 소매를 통해서 팔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규약은 전에도 검사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임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질이 나쁜 계란, 얼거나, 마른 계란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요리에 쓸 가금육의 등급이 8%가 상승되어 세분화되었다. OAS의 회의에 따르면 금년말 큐바에 대한 정치, 경제 등의 제한이 철폐된다면 U.S.D.A 의 외국 분석가의 최근의 언급에 의하면 미국의 부로일러산업은 큐바의 가금육 수요증가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동의 가금산업에 기여(항가리)

항가리의 가금업은 소비자의 생산품 수출과 기술의 향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유럽 여러나라들 중 가금육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중 항가리는 E.E.C 내에서 부로일러 수출의 3위를 점하고 있다. E.E.C 내에서 현재 항가리가 가장 큰 경쟁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소련과 항가리간의 계약취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항가리는 계란을 수출하고 있는데 요르단이 필요로 하는 계란의 전량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에 75%, 사우디아라비아에 50%의 계란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항가리는 Babolna에 수출사무소를 두고 기술과 농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종축과 종란을 팔며, 서독과 제휴하여 중동의 가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의 가장 큰 계획은 이락과 시리아에 영구적으로 수억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가금육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